민가유형의 분류 체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atic assortment of Minga types

하 종 한
Ha, Jong Han

Abstract

This study is a trial to systematize the types of Minga(house of the lower class) that is distributed in the whole Korean penninsula.

It is thought that, it can be systematised by using the method of five step' assortment which is able to divide the types of Minga.

Five steps are as follows:

1. The system of appearance and evolution of floors
2. The system of forms
3. Areal distribution of forms
4. State of gathering of living spaces
5. Variety of forms

Ⅰ. 序 論

1—1. 硏究의 目的

住居는 대다수 사람들의 生活相이 具體的이고 綜合的으로 投影된 유형적인 史料이며, 民族文化의 가장 구체적인 實相이고, 建築學的으로 볼 때 住居建築은 모든 건축의 規範이 된다고 할 수 있다.[1]

특히 民家는 한 사회의 보편적이고 다수를 이루는 대중들의 주거로서 그 사회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으로 정의될[2] 수 있는데 한국 民家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이후 우리 것에 대한 認識의 변화와 傳統에 대한 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이 부분의 연구도 활발히

* 정회원, 영남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1) 최일, 조선중기이후 남부지방 중, 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p.1.

2) 강영환, 한국 전통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건축 33권 2호, 89. 3. p.31.

進行되어 왔다.

한 時代의 주거건축은 그 時代 모든 건축의 가장 基本的인 要素라 할 수 있고 또 이들 建築空間은 그 시대의 政治, 文化, 思想, 生活感情등이 집약된 表現體로[3] 볼 수 있으므로, 民家는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구조의 맥락속에서 주거문화의 발전법칙을 규명하려는 建築史의 연구대상이 되어왔고 또한 그 지역 및 사회를 특징짓는 문화적 산물이기에 地理學과 民俗學의 조명을, 또한 전통사회의 주생활이 융해되어 형태화 된 것이기에 住居學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4]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의 成果는 한국 주거사의 여러 부분들을 규명하였으며 한국건축사의 계통확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각각의 관점을 갖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됨으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觀點이 個別的인데 특히 平面形式의 分類에 관한 연구들은, 유사한 것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마다 自身의 주장을 펴고 있어 한국주거사의 연구에 着手하거나 주택의 構成要素중 一部에 관한 硏究를 진행하려고 할 때 대단히 혼란스러우며 결국 연구자는 자신의 見解에 가장 근접한 類型을 採擇하여 그 分類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다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一般的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民家의 類型分類를 체계화 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분류방법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다 一般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분류방법을 이끌어 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주거사의 發展系統確立에 일조하고 또한 다음 연구자들의 연구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硏究의 方法 및 範圍

韓國 民家의 平面類型分類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개괄해 보면 첫째, 각 地域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平面을 地域的 特性에 따라 구분한 地域別 分類, 둘째 건물의 몸채에서 간살의 짜임에 따라 분류한 몸채의 列에 따른 분류, 그리고 기타 基準要素에 따른 분류로 三大別할 수 있다.

이들은 각자 고유한 論理를 갖는, 타당성을 갖춘 분류방법들이지만 全國에 걸쳐 多樣하게 나타나는 民家의 形態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 후에 이들이 전체적으로 綜合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一般的인 分類方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先行硏究들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가유형을 분류한 代表的인 先行硏究들을 對象으로 이들의 분류기준들을 찾아내고 이들은 분석, 고찰하여 각각의 기준요소들이 全體的으로 통합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民家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이견**이 많으며 하나의 견해로 통일된 것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학들이 사용하였던 민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며 연구의 진행 순서는 旣存 硏究의 定理, 분류상의 한계점 또는 연구자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의 추출과 이들의 보완, 분류기준요소의 추출, 각 분류기준요소의 상, 하위개념을 도입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이 개념들의 순서에 따라 민가의 유형이 段階別로 敍述될 수 있는 새 分類法을 提示함으로서 類型分類를 體系化한다.

Ⅱ. 先行硏究의 檢討

韓國民家에 있어서 平面類型의 多樣性은 주로 안채에서의 배치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부엌+방+a라는 基本形에서 이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종합되고 변화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연구자들은 이를 고찰하여 자신의 分類基準에 따라 類型을 分類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최일, 앞논문 p.1.
4) 강영환, 앞논문 p.31

前述한 바와 같이 民家平面類型에 관한 선행연구는 地域別 分類와 몸채의 列別分類, 그리고 기타 分類基準要素에 의한 分類의 3種類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장에서는 이들을 정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1. 地域別 分類

地域의 特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평면형식을 고려하여 各 地方마다의 平面型을 결정한 분류법이다.

이러한 地域別 民家平面分類를 위한 先行的 硏究는 이미 1920년대부터 今和次郎(1923)[5], 岩槻善之(1924)[주]등과 같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1924년 岩槻善之에 의해 최초로 類型에 지방명칭을 달아 체계화가 시작되었고 뒤를 이어 藤島亥治郎(1925)[7], 野村孝文(1938)[8], 신무성(1956)[9]등 제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른 의견이 발표되어 오다가 주남철(1965)[10]에 의해 정리되었고 김정기(1969)에[11] 의해 주남철과 유사한 6가지 平面類型으로 分類되었다.

이후에도 정인국(1974)[12], 박언곤(1983)[13]등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표-1 참조〉

(그림 1)은 주남철씨의 분류로[14] 그는 韓國住宅建築에서 各 地方別 平面의 分布地域과 特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함경도지방형

일명 田字型이라고도 하며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지방에 分布함.

평면의 특색은 첫째, 부엌과 정주간 사이는 간막이벽이 없이 고저차로 구분된다는점, 둘째 방한효과를 꾀한 네개의 온돌방이 벽을 공유함. 셋째 대청이 없다는 점

2)평안도지방형

평안남북도, 황해도북부 일부지방에 분포함.

남부지방형과 동일한 一字型이나 대청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3)중부지방형

개성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 일부의 중부지방에 분포함. 평안도 지방형에 대청과 방이 ㄱ자로 붙은 것이 다르다.

4)서울 지방형

서울지역에 분포함.

중부지방형처럼 ㄱ자형으로 생겼으나 부엌이 꺾인 부분에 오고 대청과 건너방이 앞쪽에 나오게 됨.

5)남부지방형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지방에 분포함. 평안도 지방형처럼 일자형이나 기후적 요인으로 대청이 첨가된 것이 특색이다.

6)제주도 지방형

제주도에만 분포함.

중앙에 대청인 상방을 두고 좌우에 작은구들과

5) 今和次朗, 朝鮮の民家, 建築雜誌 33집(1923. 7)
6) 岩槻善之, 朝鮮民家の架構に いて. 朝鮮と 建築 3집 2호(1924. 2)
7) 藤島亥治郎, 濟州道 の建築, 朝鮮と建築925. 9
8) 野村孝文, 朝鮮住宅の 一考察, 朝鮮と建築, 제 7집 5호(1938. 5)
9) 신무성, 韓食住宅 溫考智新, 建築 2호, 1956
10) 주남철,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 건축 No 21, 1965 p.50~52.
11)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 대계Ⅳ, 고대민속문화연구소, 1969
12)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4, p.273~275.
13) 박언곤, 한국건축사 강좌, 홍대출판부, 1983 p.167~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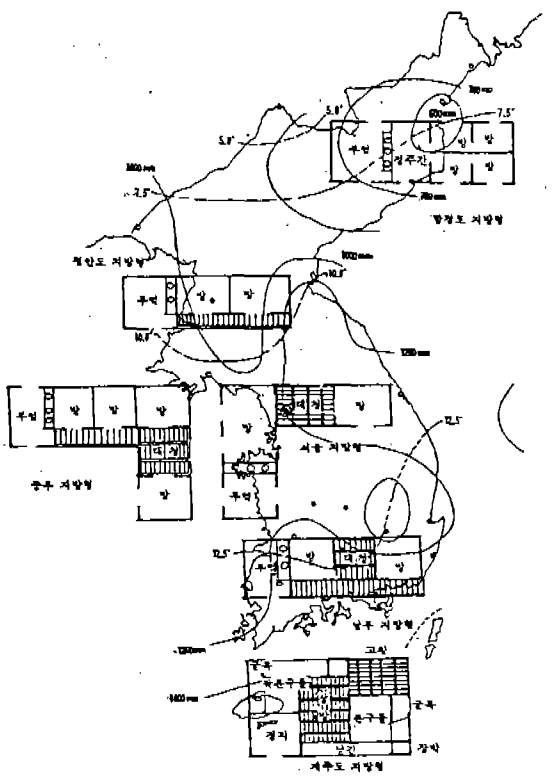
14) 그는 1965년에 발표한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는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서울지방형, 중부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지방형, 특수형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가 1980년 한국주택건축에서는 특수형을 제외하였다.

큰구들, 큰구들 북쪽에 고팡이 위치한다. 부엌인 정지는 일반적으로 작은구들 앞쪽에 두는데 취사용 아궁이가 방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기후적인 배려이며 상방과 큰구들 앞에는 낭간이라는 툇마루가 붙어 있다.

이 分類와 類似하나 다소 차이를 보이는 다른

〈표-1〉 지역별 유형분류

岩槻善之 (1924)	騰島亥治郎 (1925)	野村孝文 (1933)	신 무 성	주 남 철 (1969)	김 정 기 (1969)	정 인 국 (1969)	박 언 곤 (1983)
북선형	북선형	북선형	북부형	함경도지방형	북부형	함경형	북부형
서선형	서선형	일반형	일반형	평안도지방형	서부형	서북형	
경성형	경성형	도회형	도회형	서울지방형	서울형	서울형	
중선형	중선형			중부지방형	중부형	중부형	중부형
남선형	남선형	일반형	일반형	남부지방형	남부형	남부형	남부형
	제주도형	제주도형	제주도형	제주도지방형	제주도형		
			특수형				



〈그림-1〉 각 지방 주택평면과 연평균 기온
자료 :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p.74.

연구들로는 먼저 野村孝文氏의 分類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한국의 民家를 北鮮型과 南鮮型, 西鮮型을 합친 一般型, 京城型과 中鮮型을 합친 都會型, 그리고 濟州型으로 4分類하였으나 1981년 朝鮮の民家에서 주남철씨의 한국주택건축을 인용하여 一般型을 西鮮, 南鮮型으로 區分하였다.

다음은 신무성씨의 분류로 그는 1956년 건축 2호에 발표한 「韓式住宅 温考知新」에서 野村孝文氏의 四分類에 特殊型을 추가하여 다섯 형태로 分類하였다.

이외의 분류로는 박언곤씨의 분류가 있다. 그는 1983년에 발표한 그의 著書 韓國建築史 講座에서 田字型(북부형), 冂字型(중부형), 一字型(南部형)으로 三分類하고 있는데 南部型으로 분류한 一字型의 平面이 주남철씨의 평안도지방형인 것이 이채롭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주남철등 제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細分이 어려운 部分들을 합친 것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Ⅱ-2. 몸채의 열에 따른 분류

한일합방이후에서 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인 논의

를 거치며 발전해 온 地域別 類型分類에 對하여 "이와 같은 단순한 圖形的 分類方式은 地域的 또는 氣候的 與件에만 연결시켜 分類함으로서 과거의 회고에 빠질 위험이 매우크며 未來志向的인 學文態度가 되지 못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게 된다.

김홍식씨는[15] 1980년 2월 건축사지에 발표한 『韓國民家의 類型的 分類』에서 지역적으로나 기후적 여건에 연결시켜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經濟的, 社會的 與件에서 오는 變化를 重視하였다.

그는 時代가 변해감에 따라 새로 발생한 공간분화에서 樣式的分類, 계층을 중심으로 본 形式的 分類, 그리고 民家의 型式的 分類가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樣式은 中世樣式과 近世樣式으로, 形式은 小農의 안채形式, 中農의 사랑채形式, 大農의 바깥마당形式으로 나누고 있으며 民家의 型式으로는 외통집과 양통집, 겹집, 그리고 곱은자집의 4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학자들에[16][17] 의해서도 용마루아래 방이 몇겹으로 形成되어 있는가로 形態를 分類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地理學 分野에서도 民家의 類型分類에 대한 硏究가 있어 왔는데 장보웅씨는[18] 1974년 "韓

〈표-2〉 실의 열별 분류

리 종 목(1960)	황 철 산(1965)	김 홍 식(1980)	장 보 웅(1981)	
외통집(평야지대 주택유형)	외통류형	1. 외통집	복렬형	5실형-직가형
*외채집	일자형	외채집		-곡가형
*쌍채집	이자형	쌍채집-이자집, 튼ㄱ자집		4실형-직가형
꺽음집 : ㄱ자, ㄷ자형	ㄱ자형-대청마루 없는집	세채집-일자ㄷ자형, 튼ㄷ자형		-곡가형
*따리집 : ㅁ자형	ㄴ자형(서북부형)	네채집-튼ㅁ자형		3실형
양통집(산간지대 주택유형)	ㅁ자형-대청마루 있는집	2. 양통집 : 한 용마루 아래 량이 두줄배치		특수형(측입형)
*두겹집	(중남부형)	합각지붕, 3평주 3량, 3평주 5량	단열형	직가형-二字型
*세겹집	양통유형	6간양통-영동형		-一字型
	북부형-정주간 있는 집	-안동형		-중앙부엌형
	중부형-봉당 있는 집	-사방집(까치구멍집)		곡가형-ㄴ자형
	남부형-대청마루 있는 집	-따리집(ㅁ자형)		(ㄷ, ㅁ, ㄱ)
		3. 겹집 : 한 용마루아래 방이 일부는 두줄 일부는 한 줄로 배치		
		우진각지붕, 2고주 7량, 1고주 5량		
		2간겹집-제주도 남해안		
		3간겹집-제주도		
		4간겹집-제주도 3남지방, 가운데 대청		
		4. 곱은자집-7자집		
		가운데 대청 5간 곱은자형-중부지방		
		외양곱은자집-강원도		
		가운데 부엌집-		
		튼ㄷ자형-경기도, 서해		
		ㅁ자형(따리집)-개성지방		
		튼ㅁ자형-중부지방		

15) 김홍식, 한국민가의 유형적 분류, 건축사지, 1980. 2

16)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문화유산 5호, 1960

17) 황철산, 우리나라 과거주택의 류형과 그 형성발전, 고고민속, 1965. 3

18) 장보웅, 한국의 민가형식분류에 관한 시론, 師苑 3.4, 동국대학교, 1974. p.45~51.

國의 民家形式 分類에 관한 試論"에서 한국의 民家類型을 山地型, 平野型, 島嶼型으로 3分類하였던 것을 1981년에 발표한 "韓國의 民家硏究"[19]에서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單列型과 複列型으로 우선 분류한 후 複列型은 室의 수에 따라 5室型, 4室型, 3室型, 特殊型(側入型)으로 구분하고 5室型, 4室型의 경우 다시 眞家型과 曲家型으로 나누었으며, 單列型은 直家型과 曲家型으로 구분하고 직가형은 二字型, 一字型, 중앙부엌형으로 나누었는데 곡가형은 구분되는 형식없이 ㄴ, ㄷ, ㅁ, 형이 속하는 것으로 하여 全體的으로는 3단계로 分類하였다. 〈표-2 참조〉

Ⅱ-3. 其他 分類基準要素에 의한 分類

1. 바닥構造의 形式에 따른 分類

土床으로 부터 시작한 韓國民家의 바닥구조는 온돌과 마루라는 두가지 形態로 發展하게 된다. 이들은 韓國民家의 平面形式을 결정짓는 重要한 要素로서 民家의 平面構成에 있어서 이들 두 要素가 相互間에 어떻게 結合되는가에 따라 民家의 평면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김일진씨[20]는 이들 바닥구조를 發展史的인 側面에서 고찰하여 民家의 類形을 分類하고 旣存의 硏究들을 재정리하였다.

그는 「한국의 주택」에서 民家의 類型을 크게 홑집系統과 겹집系統으로 1차 分類하고 各 地域 民家의 平面이 갖는 바닥구조의 形式에 따라 온돌중심과 마루중심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그는 慶北 北部地域과 江原道 地域, 즉 태백산맥의 山間部에 分布되어 있으나 北部型 겹집과는 平面形式의 차이를 보이는 겹집에 주목하여 마루중심형 겹집으로 命名하였다.

그에 따르면 民家의 地域별 평면유형중 西部型, 中部型 홑집과 北部型 겹집은 온돌 中心型 民家로, 서울형과 南部型 홑집 그리고 濟州道型 겹집과 태백산맥 地域의 마루중심형 겹집은 마루中心型 民家로 分類될 수 있다. 〈표-3 참조〉

2. 住居空間의 集中度에 따른 分類

강영환씨[21]는 안채위주의 分類方式에서 탈피하여 垈地內에 建立되는 建物의 여러 棟들중 居住空間의 集中程度에 따라 分類하였다.

그는 民家의 類刑을 農村型 住居와 都市型 住居로 크게 分類하고 도시형주거는 傳來韓屋과 改良韓屋으로 나누고, 농촌형 주거는 集中型과 分散型, 折衷型의 세 형태로 나누었는데 그 下位形態로는 겹집, 튼 口자집 등의 細部形態를 두었다. 〈표-3 참조〉

〈표-3〉 기타 기준요소별 분류

김 일 진(1990) 바닥구조별		강영환(1991)거주공간의 집중도		
홑집-서부형	-온돌중심	농촌형 주거	-집중형-겹집	
중부형	-온돌중심			-들집
서울형	-마루중심			-홑집
남부형	-마루중심		-절충형-튼口자집	
겹집-북부형(X축발전형)	-온돌중심			-반겹집
마루중심형(Y축발전형)	-마루중심			-섬집
제주도형	-마루중심		-분산형-ㅡ자홑집	
				-ㄱ자집
		도시형주거	-전래한옥	
			-개량한옥	

19)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제 출판사, 1981. p.49~83.

20) 김일진, 한국의 주택, 한·중교류세미나용 원고 유인물, 1990

2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117~160.

Ⅲ. 先行研究 統合의 前提

建築의 形態를 규정하는 要因는 크게 自然環境要因과 人文社會環境要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韓國民家의 形成에 큰 영향을 미친 자연환경은 四季節이 뚜렷이 구별되는 温帶性의 氣候와 季節風, 그리고 盆地的 地形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各地域 마다의 獨特한 民家平面을 결정하는 要因이 되었다.

또한 민가의 형태는 經濟的, 社會的 與件에서 오는 變化나 住宅의 主要構成要素로서 바닥구조의 發展, 대지내 주거공간의 배치상황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변화되게 되므로 民家의 平面類刑分類는 이들을 모두 包含하는 方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章에서는 이것을 前提로하여 각 분류방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의견의 조절방안등, 전체적 통합을 위한 선행연구의 補完方案에 대하여 고찰한다.

Ⅲ-1. 地域別 類型分類

1. 西部型 民家

이 평면형은 평면의 발생, 발달상 가장 원시적 단계에 있는 것이다. 즉, 원시시대의 주거가 소위 일실일주거로서, 한 공간안에서 就寢과 食事를 하였다가 식사場所와 취침場所가 分離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食, 寢의 機能 分化에 의한 平面分化에 의한 부엌과 방이 생기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이 平面이 가장 初期的 段階의 것임을 알 수 있다.[22]

이 形式은 經濟的으로 낮은 位置에 있는 民衆들의 住居로서 使用되어 全國的으로 分布하고 있는데 이 分布狀況으로 인해 平面類型의 分類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南部型과 합쳐서 一般型으로 보는 見解[23]와 氣候的 條件이나 마루를 연결시켜볼 때 南鮮型과 西鮮型은 區分되어야 한다는 見解[24]가 있어 왔는데 野村孝文氏는 1981년 朝鮮の民家에서 주남철씨의 見解를 받아들여 一般型을 西鮮型과 南鮮型으로 區分함으로서 두 연구자간의 의견은 조정되었다. 그러나 정인국씨[25]는 주남철씨의 見解에 대하여 "소위 서한형이라는 평면이 경남북 全域에 걸쳐 散在해 있다는 사실과는 반대로 南部型은 경남북보다는 전남북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사실이며, 이 명칭이 표시하는 것같이 명확하게 形成分布되어 있지도 않으며 數量的으로도 그 지방에 많은 평면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하여 이 分類에 대해 不信感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西部型이 전국에 걸쳐 散在한다는 사실에는 先行研究者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을 南部型과 합쳐서 一般型으로 볼 것인가 區分할 것인가 하는 점과 구분을 할 경우 分布狀況에서 차이가 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성기씨[26]는 서선형, 서한형, 서부형, 평안도지방형으로 불리고 있는 이 三間一字型 홑집의 平面을 오막살이집으로 제외시키고 이를 "韓國民家의 基本型으로 부르고 싶다"고 하고 있다.

결국 西部型이 갖는 문제점은 그 分布狀況이 정확히 把握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個人別 調査能力의 限界와 함께 旣存의 調査가 마을을 한 단위로 하는 面調査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點 또는 線調査로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분포상황에 있어서 南部型과의 區分이

22)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p.78.

23) 野村孝文, 신무성씨 등의 주장으로 西洋型과 南鮮型을 합쳐 南部型으로, 京城型과 中鮮型을 합쳐 都會型으로 보았다.

24) 주남철씨의 견해이다.

25) 정인국, 앞책, p.374.

26)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5, p.22.

어렵다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들 수 있다.

○ 보완방안

西部型 民家의 分布比를 알아보기 위해 民家를 실측조사하여 발표하였던 先行硏究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이 찬, 중부지방의 민가형태 연구개요,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4집
- 대 상 : 중부지방 민가 2,777호
- 분포비 : 21.8%

* 김홍식, 낙안성 민속보존마을 조사보고서, 전남 승주군, 1979
- 대 상 : 전남 승주군 성내마을 민가 154호
- 분포비 | 28.6%

* 울산공대 건축학과, 의인 섬마을, 연구논문집 제7권 제2호, 울산공대, 1976
- 대 상 : 경북 안동수몰지구 의인 섬마을 민가 69호
- 분포비 : 48.7%

* 최효성, 대청댐 수몰지역 농촌취락 실측조사, 건축, 제25권 98호, 1981
- 대 상 : 대청댐 수몰지역의 압실마을 민가 29호
- 분포비 : 75.8%

* 이호열외, 경남지역 농촌의 의, 식, 주생활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학회지 제28권 1호
- 대 상 : 경남 밀양군 부북면 대항리 민가 48호
- 분포비 : 70.7%

* 김용태, 한국농촌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건축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대 상 : 경남 밀양군 상동면 안인리 민가 84호
- 분포비 : 72.6%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西部型이 다른 地域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대단히 높다.

또한 필자등이 최근에 조사한 운문댐 수몰지구 내 20여개 자연부락에서 75호의 민가를 線調査 한 바 있는데 이 자료에서도 西部型民家가 차지하는 분포비는 65.3%에 이른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民家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지 분포비는 80%를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分布狀況面을 보면 이는 西部型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조성기씨의 견해에 따라 基本型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형을 基本型으로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4장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2. 名稱 및 名稱使用範圍의 統一

地域別 分類方式에서 두번째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명칭의 사용과 명칭이 나타내는 범위에서 연구자들간에 차이가 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언곤씨는 韓國民家를 北部型, 中部型, 南部型으로 3분류하고 있는데 중부형은 서울형과 중부형을, 南部型은 서부형과 남부형을 통합한 개념이다. 따라서 같은 用語를 사용하더라고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適用範圍가 다르다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명칭에 있어서 주남철씨가 사용한 行政區域上에 따른 呼稱은 그 分布地域의 범위로 볼 때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 보완방안

名稱과 그 使用範圍는 주남철씨의 주장처럼 이들이 평면형식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區分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行政區域의 名稱은 變更될 소지가 많고 실지로 북한의 행정단위로 道는 양강도 자강도등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그 周圍를 包含하는 槪念으로서 北部, 西部등의 名稱으로 使用됨이 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외 평면

현재까지 학회지나 기타 잡지류에 발표된 도투마리집이나 까치구멍집, 김일진씨가 주장한 마루중심형 겹집등은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의 山間地方에 널리 分布하는 民家의 形態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동형, 안동형, 봉당집, 태백산맥 주가대 민가등 研究者마다 다른 名稱으로 불리며 地域別 分類形式에 包含되고 있지 못한점은 세번째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 보완방안

태백산백의 山間部, 즉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분포하는 民家의 形態는 겹집이 主流를 이룬다. 이 地域은 남쪽의 文化와 북쪽의 文化가 折衷되는 地域으로서 남쪽에서 발달한 마루가 中心이 되는 겹집과 北部型의 변형으로서 정주간이 퇴화한 田字型, 즉 온돌이 中心이 되는 겹집 그리고 마루가 놓이지 못하고 봉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겹집의 여러 形態가 있다.

이것이 이 地域의 民家를 地域別 分類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장의 서두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呼稱 및 分類基準의 一貫性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필자는 이 地域의 民家를 東部型 民家로 호칭하고 마루중심형 겹집과 까치구멍집을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온돌중심의 겹집에 관하여는 4장에서 언급한다.

Ⅲ-2. 몸채의 列別 分類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학자들에 民家의 類型을크게 외통집과 양통집으로 分類하고 그 下位 類型으로 몇 개의 유형을 두고 있는데 이로서 民家의 類型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다. 또한 북한학자들의 二分類에 비해 김홍식씨는 외통집, 양통집, 겹집, 곱은자집으로 四分類하고 있는데 김홍식씨의 분류는 韓國民家의 類型分類에서 地域別分類方法이 표현하고 있지 못한 여러 면들을 明快하게 나타내 보인 탁월한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겹집은 한 용마루아래 방이 일부는 두줄 일부는 한줄로 배치되는 평면형을 표현한 것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表現上의 어려움을 해결한 좋은 分類方法이다.

그러나 이 章의 서두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모두 타당성을 가지는 다른 연구들과 함께 全體的으로 統合되기 위하여는 이 겹집과 곱은자집은 다른 部分으로 吸收되어야 한다.

○보완방안

북한학자들의 분류는 다른 분류방법들과 함께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見解가 受容될 수 있으며, 김홍식씨의 분류의 경우 전체적 통합을 위한 보완방안으로는 4형태중 겹집을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겹집은 民家平面의 발전상 외통집에서 經濟的 規模가 廣大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완성된 양통집에서 그 形式을 縮小하여 겹집으로 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겹집은 외통집에서 확대된 형태로 보고 홑집계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곱은자집은 지역별 분류에서 서울형, 중부지방형과 같은 ㄱ자형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이들과 같이 취급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겹집과 곱은자집을 해결한 후의 외통집과 양통집은 북한 학자들의 외통집, 양통집과 함께 홑집과 겹집의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하 이 글에서는 홑집과 겹집으로 표현한다.

Ⅲ-3. 其他 分類基準에 의한 分類

1. 바닥構造別 分類

前述한 바와 같이 이 分類는 온돌과 마루라는 바닥구조의 상태, 즉 生活의 中心이 되는 가운데

間의 바닥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른 分類方法이다.

이것은 홑집系統과 겹집系統으로 우선 분류하고 지역별 분류를 系統別로 나누어 놓은후 그것이 온돌중심인가 또는 마루중심인가를 考察한 것이다.

이 分類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별 유형분류에 마루중심형이란 地方名稱을 갖지 못하는 平面形式이 삽입되어 동시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 보완방안

東部型이 採擇됨으로서 解決될 수 있다.

2. 住居空間의 集中度에 따른 分類

이 분류는 한 垈地內에 建立되는 모든 建物들중 거주공간의 집중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서 旣存의 안채 中心의 分類法을 脫皮한 좋은 分類方法이지만, 최종단계인 細部形態에서 그 형태가 分布하는 地域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 보완방안

이 역시 다른 분류기준요소들과의 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民家類形의 分類 體系化에 관한 考察

Ⅱ,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民家平面의 類形分類를 위한 先行硏究에는 여러가지 分類基準要素들이 使用되었으며, 段階別로 볼 때 이들은 대체로 1-4 段階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별로 분류한 연구자들은 대개 신분상의 階層別로 區分한 후 庶民層의 住居, 즉 民家의 類型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民家에 대해서는 1段階로 分類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리종목, 황철산 등의 북한학자들은 외통, 양통과 같이 形態의 系統으로 일차 분류한 후 下位의 槪念으로 평면유형을 분류한 2段階 分類方式을 보이며 김일진, 장보웅, 강영환씨등이 각각 3段階의 分類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또한 김홍식씨의 경우, 時代(양식), 經濟力(형식), 形態(형). 形態別 分布의 4段階로 分類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의 타당성을 갖는 주장들로서 各自의 論理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을 全體的으로 綜合할 때 나타나는 結果物은 가장 普遍性을 갖는 類刑分類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은 각 연구자들이 사용한 여러 개의 분류기준요소들이 연구자들 각각의 관점에 따라 사용되었기 때문에 分類基準의 上, 下位의 槪念, 즉 槪念上의 位階가 모호한 상태로 混在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기준요소에 대한 上, 下位의 槪念을 段階別로 設定하는 것은 民家類型의 分類體系化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기준요소의 위계가 설정되어 한 민가가 段階的으로 敍述될 수 있을 때 民家類型의 分類方式은 體系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Ⅳ-1. 分類基準要素에 대한 槪念上의 位階 設定

분류기준요소의상, 하위 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가장 먼저 民家의 發生과 發展에 대한 考察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民家가 現在의 形態로 傳來되어온 과정에는 온돌과 마루라는 양대 바닥구조가 決定的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에 대하여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氣候의 여건상 북쪽에서 발생한 온돌이 남쪽으로 전파되고 남쪽에서 발생한 마루구조가 북쪽으

로 전파된 것[27]으로 생각할 때 韓國民家는 발전과정상 온돌구조를 中心으로 發展한 것과 마루를[28] 中心으로 發展한 것의 2系統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發展系統은 가장 上位의 槪念, 즉 1段階로 봐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形態에 관한 문제로 類型分類의 대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民家의 다양한 형태를 대상으로 몸채의 列, 안채와 부속채와의 關係, 分布地域 그리고 각 지방별로 나타나는 細部形態등 여러가지 觀點에서 고찰되어 왔다.

한국의 民家를 形態別로 크게 分類할 때 홑집계통과 겹집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통집, 양통집, 외통유형, 양통유형으로도 불린다.

이 형태계통은 巨視的인 觀點에서 북한학자 리종목의 부언처럼 외통집을 平野地帶 住宅類型으로 양통집을 山間地帶 住宅類型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홑집은 반도의 서북부에서 남부에 걸쳐 분포하는데 이 地域에는 차령, 노령, 소백산맥 등의 산맥이 있으나 평야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다 높은 平野地帶로 볼 수 있고, 겹집은 반도의 동북부에서 태백산맥을 따라 남하하여 경상북도의 북부 地域에 까지 分布하므로 山間地帶의 住宅類型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濟州道의 겹집은 安東地域에서 흔히 보이는 까치구멍집의 형태에 굴묵이 接續되어 완성된 형태, 즉 온돌구조가 다른 地域처럼 정상적으로 採用되지 못하고 未完成의 狀態로 굳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北部型의 겹집과는 그 系統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形態의 系統에 따라 各 地域別로 다양한 民家類型을 分類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형태분류중 가장 上位의 槪念 즉, 2段階의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段階의 기준이 되는 것은 分布地域, 즉 地域別 類型이 되어야 할 것이다.

類型分類의 기준을 안채를 對象으로 할 것인가, 住居空間의 모임정도에 따라 해야할 것인가 또는 한 垈地내에 建立된 모든 建物의 棟을 모두 包含하는 分類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民家는 經濟力이 높지 못한 庶民大衆의 住居이고 특히 홑집계통의 中, 南部地方 民家에서는 氣候的 條件에 따라 건물의 棟이 分散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생활의 중심이 되는 안채가 우선 建立되고 經濟力의 向上에 따라 附屬채들이 점차 附加되어 全體的인 配置形態가 決定되므로 안채를 중심으로 본 民家의 平面이 特定地域에 많이 분포함으로서 그 地域의 一般型으로 볼 수 있을때 이 分布狀況別 形態는 3段階의 槪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住居空間이 分離됨으로서 3段階에서 설명될 수 없는 形態에 대하여는 다음 段階에서 거주공간의 집중정도에 따라 다시 分類함으로서 한 民家에 대한 보다 선명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4段階의 槪念으로 設定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段階에서는 각 연구자들이 발표한 바 있는 여러 類型들을 위 4段階의 槪念에 따라 細分類한, 細部形態別 分類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에는 建物의 平面形態뿐 아니라 대지내의 전체 배치상황이 고려된 配置形態까지 表現될 수 있을 것이다.

Ⅳ-2. 類型分類方法의 體系化

앞 절에서 類型分類의 體系化를 위해 先行硏究者들이 사용한 여러 分類基準要素들의 段階別 上, 下位槪念을 設定하였다.

이때 따라 기준요소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1단계 : 바닥構造의 發展-온돌, 마루

2단계 : 形態系統-홑집, 겹집

3단계 : 分布地域別 形態-기본형, 북부형, 서부

27) 마루구조는 그 전래 및 전파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기후적 여건을 생각할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28) 흙마루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형, 서울형, 중부형, 동부형, 남부형, 제주도형

4단계 : 住居空間의 集中度-집중형, 분산형, 절충형

5단계 : 細部形態-쌍채집, 튼口자집, 곱은자집 등의 5단계로 이들을 體系化할 수 있다. 이 때의 각 段階는 水平的 關係가 아니라 단계적 順序에 따르는 垂直的 關係인데

〈표-4〉 새로운 민가형 분류

발생 발전	형태			
	계통	분포지역별 형태	거주공간 집중도	세부형태 (변형), (동형)
온돌	홑집	기본형	분산형	오막살이집, 도투마리집, 중앙부엌형
		서부형	집중형	쌍채집(二字型)
		중부형	분산형	곱은자집,(튼ㄷ자집, 튼口자집)
	겹집	북부형	집중형	田字型, 온돌중심형 겹집 (6간 중앙 구들집, 4실직가형)
마루	홑집	서울형	분산형	ㄱ자집,(ㄷ자집, 튼口자집)
		남부형	분산형	4간一字型(대청마루 있는 집) (외채, 쌍채, 세채, 네채집)
	겹집	동부형	집중형	마루중심형 겹집(6간중앙마루집) 까치구멍집(봉당집, 안동형)
		제주도형	절충형	(2간 겹집)3간 겹집, (4간 겹집)

1, 2 단계는 주 기준이 되는 3단계의 발전사적 서술이고 4단계는 안채를 중심으로 분류된 3단계의 보완이며 5단계는 3단계를 기본형으로 볼 때 파생되는 많은 변형, 즉 세부형태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표-4〉참조

이렇게 段階別로 이들을 體系化할 때 몇가지의 問題點이 노출된다.

그 첫번째는 全國에 걸쳐 分布하는 三間一字型의 民家를 오막살이집으로 보아 基本型으로 호칭할 때 그 規模의 範圍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두번째는 이 경우 西部型과의 區分이 문제가 되며, 세번째는 각 段階에서 用語의 一貫性을 維持하기 위해 채용한 東部型의 경우 그 分布地域의 範圍와 分布地域내에서도 多樣하게 나타나는 民家의 形態를 어떻게 區分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論議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筆者의 意見을 개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오막살이집의 規模

三間一字형 홑집의 平面을 갖는 이 民家는 부엌+방+방이라는 극히 작은 規模로 作業空間 및 收藏空間이 많이 필요한 農家에서는 이 안채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므로 1-3동의 부속채를 附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때 1棟은 아랫채(또는 사랑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랫채에는 아랫방(사랑방)으로 불리는 1間의 居住室이 다른 收藏用 또는 作業用 室과 함께 꾸며진다.

오막살이집은 庶民중에서도 經濟力이 낮은 사람들의 住居인 점을 감안하여 이 오막살이집의 規模를 안채외의 住居室이 없는 집으로, 즉 안채뿐이거나 아랫채를 두지 않고 안채와 헛간동으로 構成되는 집으로 限定한다면 오막살이집이 갖는 의미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基本型으로 보면 全國的으로 分布함으로서 생기는 地域別 分類의 混沌을 防止함과 동시에 南部型과의 區別 또한 可能해 지리라고 생각된다.

(2)基本型과 西部型과의 區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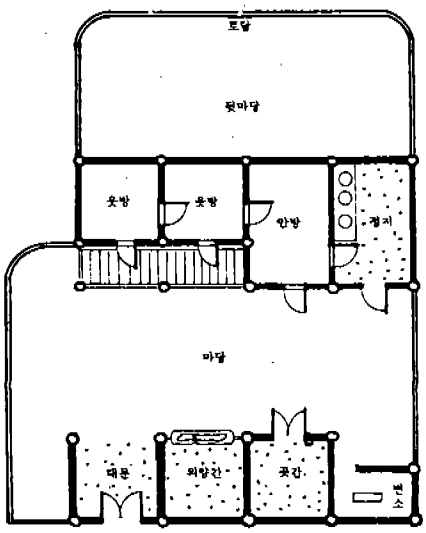
이 型을 基本型으로 볼 경우 지금까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던 西部型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地域에서 나온 論文을 參考할 수 밖에 없는데 다행이 북한학자 리종목씨가 1961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一段階에서 외통집과 양통집의 두 形態로 분류한 후 2段階로 細部形態를 分類하는 방식을 採擇하고 있는데 외통집에 대하여 "외통집은 한 용마루 아래에 부엌, 안방, 웃방등이 외줄로 배치된 집이다. 그런데 이 외통집은 량통집이 아닌 대신에 외채집에 비하여 쌍채집을 이루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한 ㄱ자 또는 ㄷ자형으로 걱어진 집도 적지 않다."고 적고 있으며 외통집의 하부류형인 외채집, 즉 오막살이집에 대하여는 "외채집이란 單 채로 된 일자형 외통집을 말하는 것인데 부엌과 아랫방, 웃방 및 긴 퇴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채집은 과거 빈곤한 농민들이 이용한 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서북부와 중남부에 다른 형태의 주택과 함께 분포하는데 원래 쌍채집을 건설할 목적으로 먼저 몸채만을 세워 놓았으나 능력이 도저히 허용치 않아 앞채를 세우지 못하고 몸채만으로 외채집을 만든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적고 있는데 그 形態나 生活의 內容으로 보아 이를 오막살이집으로 보아도 하등의 무리가 없으며 또한 分布狀況面에서도 中, 南部地域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는 쌍채집에 대하여 "쌍채집은 우리나라 서북부지대 즉 낭림산맥, 북대봉산맥 이서지대에 압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바 남으로는 멸악산맥지대까지 분포하여 있다.

쌍채집은 몸채와 앞채로 형성되며 몸채와 앞채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평행하게 위치하는바 몸채와 앞채간에는 그 좌우에 울담장을 축조한다. 그리하고 몸채와 앞채 사이에 생기는 정방형의 공간을 안뜰이라고 하는데 앞채의 밖에도 앞뜰이 생긴다. (그림 2)"고 하여 西部地域에서 외채집보다는 쌍채집이 더 一般的인 民家形態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 평안도 쌍채집 평면
자료 : (장보웅)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p.128에서 재인용

또한 강영환씨[29]도 이 쌍채집에 대하여 "평안도 지방에서는 두채의 건물이 나란히 마주보는 〈쌍채집〉이 많이 분포한다고 하는데, 〈쌍채집〉은 비록 겹집은 아니지만 집중형 주거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쌍채집〉은 두개의 건물로 이루어지고, 건물사이에 마당이 있으며, 각 건물이 홑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학자들은 남부지방과 동일한 〈홑집〉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방의 홑집과는 달리 안마당이 좁고 두 건물을 높은 담장으로 이어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만든 것은 오히려 〈뜰집〉에 가까우며, 남부지방의 〈홑집〉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하여 西部地域에서 一般的인 民家의 形態를 이 쌍채집으로 보고

29) 강영환, 앞책 p.127.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西部型으로 불리워 오던 외채집을 오막살이집으로 보아 基本型으로 分類하고 이 쌍채집을 西部型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東部型

東部型 民家란 필자가 본 연구에서의 3段階 즉, 地域別 類型에서 用語 使用의 一貫性을 維持하기 위해 設定한 名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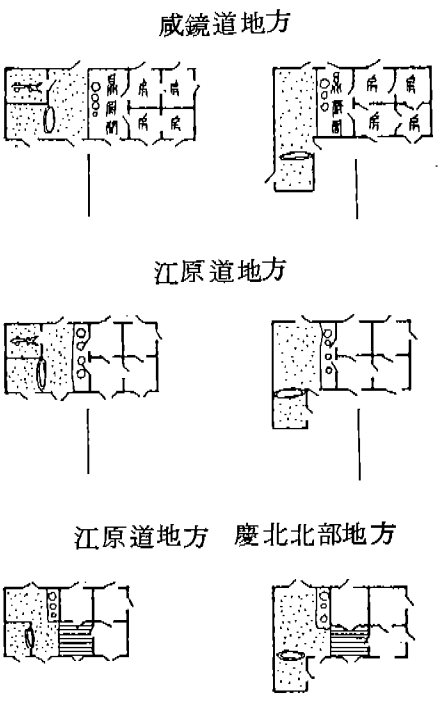
3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地域的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며 그 形態는 발전계통상 마루가 중심이 되는 겹집과 마루가 놓이지 못하고 봉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까치구멍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이 지역에는 온돌이 중심이 되는 온돌중심형 겹집(6간중앙구들집)이 함께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 形態의 處理가 問題가 된다.

한 地域에서 여러 形態의 民家가 混在하여 어느 특정한 형태를 一般的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그 發展系統을 따져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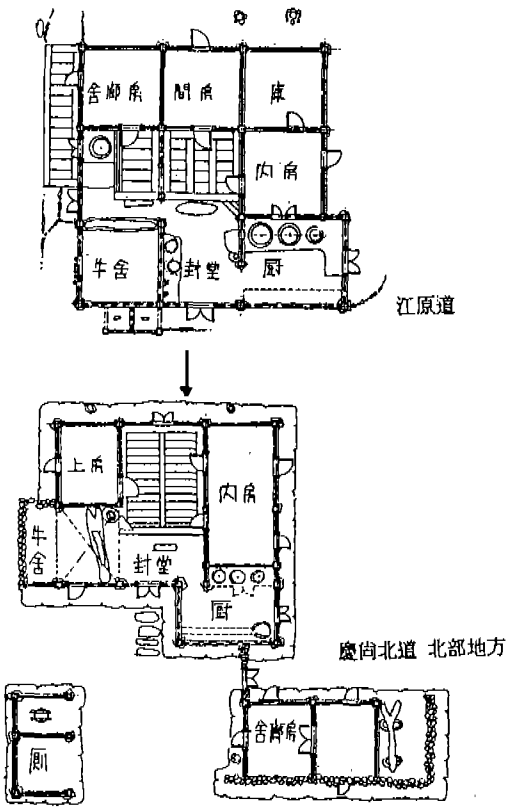
김일진씨[30]는 "북부형 주택은 온돌의 발생지답게 모든 거실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어 추운 북부지방에 적합한 평면구성을 보여준다. 강원도나 경북북부지방에서도 이 계열에 속하는 주택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쪽으로 내려 올수록 정주간이 없어지는 등 온돌 바닥이 줄어들고 대신 마루바닥이 들어오는 변화를 보인다. 한편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방에는 마루가 주택평면의 중심에 있는 겹집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4〉에 예를 든 이러한 겹집은 태백산맥의 산간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평면의 규모는 경북보다 강원도 쪽을 갈수록 확장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생활의 중심부에 마루가 놓이는 것이 특징임에 마루중심형 겹집이라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여 온돌중심형 겹집과 마루중심형 겹집을 區分하고 있는데 이렇게 發展의 系統別로 고찰해 볼 때 이들의 區分은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北部型 民家에서 정주간이 退化된 形態로, 北部型과는 차이를 보이나 그 發展系統上 온돌이 中心이 되는 겹집을, 北部型의 變形으로 보아 北部型에 포함시키고, 마루를 중심으로 발전한 마루중심형 겹집과 마루가 놓이지 못하고 봉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까치구멍집(봉당집)을 한 系列로 묶고 이를 이 地域의 一般的인 形態로 봐서 東部型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북부형 겹집의 남천 변화
자료 : 김일진, 한국의 주택

30) 김일진, 앞글, p.7~8.



〈그림-4〉 마루중심형 겹집
자료 : 김일진, 한국의 주택

V. 結 論

本 研究는 民家의 類型分類를 體系化 하기 위한 시도로서, 보다 一般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分類方法을 이끌어 내고자 함에 그 目的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는 先行研究들을 고찰하여 각 연구의 分類基準要素들을 綜合하는 方法이 사용되었고, 그 순서는 旣存 研究들의 整理, 전체적 통합을 위한 선행연구의 보완방안 고찰, 分類基準要素의 抽出, 各 分類基準要素의 上, 下位概念 導入, 그리고 이 概念들에 따라 段階別로 서술한 새 分類法의 提示의 순으로 進行하고 이 分類基準要素들의 上, 下位概念에 따라 5段階로 이들을 體系化하였다.

各 段階別로 이들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바닥구조의 발전-온돌, 마루

2단계 : 형태계통-홑집, 겹집

3단계 : 분포지역별 형태-기본형, 북부형, 서부형, 서울형, 중부형, 동부형, 남부형, 제주도형

4단계 : 주거공간의 집중도-집중형, 분산형, 절충형

5단계 : 세부형태-쌍채집, 튼口자집, 곱은자집 등

이렇게 민가유형을 분류할 때 주 기준이 되는 것은 3단계이다. 한국민가의 유형은 각 지방에 따라 독특한 평면형으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이 3단계가 주 기준이 되어야 하며, 단지 이 3단계는 안채를 주 분류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주공간의 모임정도나 전체 배치에 대하여는 4단계에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 2 단계는 발전사적 측면에서 본 3단계의 계통설명이며 5단계는 3단계를 기준형으로 볼 때 파생되는 많은 세부형태들에 대한 서술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들을 體系化 할 때 기존의 연구들과 상충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점은 基本型의 규모, 基本型과 西部型의 구별, 東部型이 라는 새 用語의 使用에 따라 發生되는 地域의 設定과 形態의 決定 등이다.

이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提示하였다.

첫째, 基本型의 規模에 대하여는 안채외에는 따로 住居空間을 갖지 않는 집으로 하고,

둘째, 基本型과 西部型과의 區別은 평안도를 중심으로한 西部地域에서 외채집 이상으로 分布比率이 높은 쌍채집을 西部型으로 대체하며,

셋째, 東部型이 나타내는 地域의 範圍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방으로 한다. 東部型의 형태는 이 地域에 分布하는 겹집 중 정주간이 없는 겹집은

그 發展系統上 온돌이 중심이 되므로 北部型의 변형으로 보아 北部型에 포함시키고, 마루를 中心으로 發展한 마루중심형 겹집과 마루가 놓이지 못하고 봉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봉당집을 한 系列로 묶고, 이를 이 地域의 一般的인 形態로 보아 東部型으로 分類한다.

本 硏究는 民家의 平面 類型을 體系化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과정에서 旣存의 硏究들과 相沖되거나 또는 表現될 수 없는 部分들에 대하여는 筆者의 見解를 밝힌바 있는데 이것은 韓國의 民家類型을 體系化하기 위한 하나의 意見提示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많은 議論와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최 일, 조선중기이후 남부지방 중, 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p. 1
2. 강영환, 한국 전통민가연구의 동향과 과제, 건축 33권 2호, 89. 3. p. 31
3.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 117-160
4. 今和次郎, 朝鮮の 民家, 建築雜誌 33집, 1923. 7 주남철,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연구에서 재인용
5. 岩槻善之, 朝鮮民家の架構に いで, 朝鮮と 建築 3집 2호, 1924. 2
6. 藤島亥治郎, 濟州道の 建築, 朝鮮と 建築 제 4집 9호, 1925. 9
7. 野村孝文, 朝鮮住宅の 一考察, 朝鮮と 建築 제17집 5호(1938. 5)
8. 신무성, 한식주택 온고지신, 건축2호, 1956
9. 주남철,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지, No 9, 10.
10.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p73-87
11.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Ⅳ,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9.
12. 김일진, 한국의 주택, 한·중교류세미나용 원고 유인물, 1990
13. 정인국, 한국건축 양식론, 일지사, 1974, p273-275
14. 박언곤, 한국건축사 강좌, 홍대출판부, 1983,
15. 김홍식, 한국민가의 유형적 분류, 건축사지, 1980. 2.
16. 장보웅, 한국의 민가형식 분류에 관한 시론, 사원 3.4, 동국대학교, 1974, p45-51
17.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제 출판사, 1981, p49-83
18.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문화유산 5호, 1960
19. 황철산, 우리나라 과거주택의 류형과 그 형성발전, 고고민속, 1965. 3
20. 조성기, 한국 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5. 2